광주시, 대학지원 사업으로 지역혁신·동반성장 이끈다

첨단 산업분야 석박사 1000명 배출·3만 5000개 기업 창업 목표
산업발전 이끌고 광주일자리플랫폼 연계 인재 머무는 선순환 구조

광주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광주 첨단산업 발전을 이끌고 광주일자리플랫폼과 연계해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비전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총 749억 1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한 데 이어 4개 프로젝트, 14개 단위과제를 수행할 광주 17개 대학(컨소시엄 포함)을 선정했다.

4개 프로젝트는 '인재 스킬업(SKILL UP)', '기업 밸류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대학 이노업(INNO UP)' 등이다. 14개 단위과제를 수행한 17개 광주지역 대학(과제별로는 63개 대학)을 선정했다. 라이즈(RISE)체계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광주라이즈위원회는 총 사업비 749억1000만원의 과제별로 평가를 해 대학별 배분방식을 결정했다.

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GIST)컨소시엄과 조선대는 63억원을 지원받아 2029년까지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분야 미래 고급인재(석·박사) 1000명을 배출하기로 했다.

광주에 정착하는 취업자들이 40%가 될 수 있도록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남부대·동강대·폴레텍V 컨소시엄, 조선이공대가 180억원의 예산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남대·GIST 컨소시엄, 조선대·광주여대·조선이공대 컨소시엄, 호남대, 남부대·송원대·폴리텍V 컨소시엄은 123억원을 지원받아 2029년까지 지역에 3만 5000개 창업기업을 목표로 하는 R&D(연구개발)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인재 스킬업 프로젝트'는 3개 단위과제에 대해 13곳(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학)이 뽑혔다. 이들 대학은 252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혁신인재,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고교연계형 예비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 15곳 대학이 선정된 '기업 밸류업(VALUE UP) 프로젝트'에는 3개 단위과제로 213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대학은 기업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광주 창업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광주일자리플랫폼과 연계해 지역인재의 지역 취업 지원을 위한 대학·지자체·기업 간 취업지원 플랫폼 운영을 한다.

대학 내 실증스튜디오 구축·운영해 대학이 보유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역기업이 제품개발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프로젝트'는 4개 단위과제에 17곳의 대학이 지정됐다.

102억 8500만원의 예산을 받는 대학들은 리빙랩 운영,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역문화예술·관광 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 모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역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대학 이노업(INNO UP) 프로젝트'는 4개 단위과제를 18곳의 대학에서 수행한다.

대학 시설공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대학 간 공유교육 체계구축, 직업평생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0억5500만원이 투입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사업 공모를 통해 17개 대학의 81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광주라이즈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표, 개헌 국민투표 거부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요청한 즉각적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는 우선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이를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실제로 결과는 내지 못하며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탄핵당한 당은 차기대선 포기해야 한다" 발언이 담긴 영상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 개헌 국민투표 찬성

"탄핵 사태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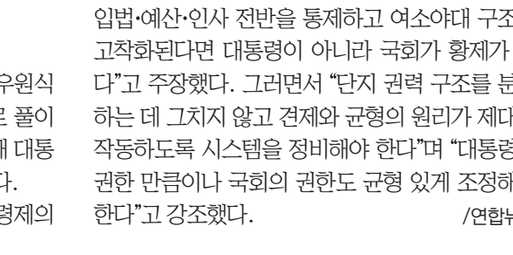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